

# 거제도 백로 폐사 원인은 '질병'

## 미확인 추측기사나 성급한 보도 자제해야

### 최

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매체의 경우 사실내용과 다른 추측기사나 전문가의 확인없는 성급한 보도가 늘고 있다. 더욱이 추측보도나 피상적인 자료를 근거로 사실까지 신고 있어 오해는 물론 불안감을 크게 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시 일원에서 발생한 백로폐사는 살모넬라균 감염에 의한 식중독과 폐혈증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거제백로의 폐사원인은 시베리아, 만주, 북한 등 번식지에서 서식하던 어린백로가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장거리 비행으로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함으로써 면역기능이 떨어져 체내에 있던 살모넬라균이 활성화되어 간조직에까지 침투, 폐혈증과 식중독 현상을 일으킨 것이 직접

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 섭취한 BHC(유기수은계 농약)와 DDT(유기염소계 농약)에 의한 농약중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일부 매스컴의 보도는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폐사한 거제주변의 물을 수거 분석한 결과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이 산림청 합동조사반인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산진흥원에서 거제주변 해역의 해수, 해저퇴적물, 해산물을 수거 분석한 결과 중금속이나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추석을 전후해 벼멸구 방제를 위해 농약을 많이 뿌렸고 가뭄으로 농약농도가 높

아져 BHC나 DDT성분이 검출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지난해에 사용한 멸구약은 대부분 카바메이트계로 유기수은계나 유기염소계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백로는 우리나라의 52곳을 비롯하여 한반도 뿐만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

BHC와 DDT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1971년과 1979년에 각각 사용금지 되었다. **농약정보**



“농약 중독된듯”